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다시 새롭게 "2010년 도약의 해"

대구주보

예수 성탄 대축일

2009. 12. 25. (다해) 제1654호





세상의 모든 만남

안영실 루시아 | 소설가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만난 오늘, 저는 만남에 대해 묵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동료, 스승이나 상사, 자연과 이치, 지혜와 사랑, 절망과 두려움, 하느님과 만남 등. 우리의 삶이란 만남으로 시작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인연은 인생을 채우며 역사를 만듭니다. 앤소니 신부의 말을 빌리면, '세상의 모든 만남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관계를 맺는 것은 반응하는 것. 반응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은 나를 깨닫게 하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다.

주보에 글을 맡게 된 후부터 저는 가톨릭 영성 서적을 찾아 읽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그 사람이 평생 깎고 다듬어온 지혜와 성찰이 녹아 있으니까요. 요즘은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의 모든 책을 구해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신부님은 '깨달음'이라 고 웅변하십니다. 틀에 박힌 사고와, 형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참 자기를 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 중에서 가족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가정이란 신비로운 만남의 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긴 한 인간을 잘 보살피고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저는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할 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불안한 상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존재들이 세상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여기에 결혼생활의 중요성과 위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자식을 왕자와 공주로 키웁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면 동화처럼 행복하기만 할까요? 결혼의 좌충우돌 속에서 아이까지 키우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요?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 결혼은 자신이라고 믿었던 어떤 것들을 당장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에 왕자와 공주를 내려놓으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뒤에 계신 분의 자비로운 손길이 있지만, 그 손길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앤소니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이혼하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유 위의 예수님을 보며 저는 다시 책의 구절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환상이 무너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여러분은 깨달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기예수님 또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한 해의 끝자락에 거듭 새로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쁘고 또 기쁜, 은총과 감사의 날이겠지요.

대구 연세안과

라식, 백내장, 알티산 수술전문병원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과교수 **박중원** 원장(소시모)

-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상담전화 **626-8881~5**

365일 24시간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치매, 중풍,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 ♣가정방문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 ♣부모님처럼 돌보아드립니다.
- ♣정부에서 85% 지원합니다

사랑재가요양기관

대구전지역 791-7772 신인수
경산전지역 856-7243 사도요한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 (프란치스코)
송선희 (안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진료)

종합관리, 이웃사랑 —

(주)유니온 O.S

**청소 · 경비
인재 파견**

☎ 341-2001, 011-817-0157

대표: 류 스테파노

달성피부과

BF:아토피센터 1F:레이저크리닉
2F:여드름 탈모케어 3F:항노화동안크리닉

손재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HSC 현대상조주식회사

직영:대구 전문장례식장
(동대구 1.C열 961-4444)

http://www.sangjo114.net

장례, 결혼, 칠순, 돌, 각종이벤트

24시간 상담전화: **1566-1678**

대표이사 **이봉상** (안토니오)

매일상조

매일신문사, 가톨릭신문사, 대구평화방송이
출자한 전문 상조회사입니다!

상담전화: **1577-9559**

www.msangjo.com

가족사랑 이웃사랑 -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역박사/전문 **김기산** (안드레이)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교구장 직무대행 성탄 축하 메시지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성탄을 목자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루카2, 10)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라 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 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2,14)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도 하느님에게도 큰 기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미테랑이란 사람이 죽기 직전에 피에르 신부님(Henri Antoine Groues. 1912-2007. 세계적인 빈민구호 단체 ‘엠마우스’ 설립.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1위로 뽑히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신(神)이 존재할까요?” 피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와, 뭐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언젠가 가난한 이에게 가진 것을 다 주고 돌아 설 때 자네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자네 마음이 기뻐했다는 게 그 증거라네.”

“가난한 이에게 가진 것을 다 주고 돌아 설 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마음에 가득 찼던 기쁨.” 이 기쁨이 하느님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천국의 축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느님, 당신의 모든 것 중의 모든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립2,6-7)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이라고 노래하셨던 “하느님의 기쁨”. 이런 하느님의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느님의 기쁨’ 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기쁨에 화답하여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시고자 오신 예수님.
절망에 무릎시린 우리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시고자 오신 예수님.
시련과 아픔의 한숨으로 꺼져 내리는 삶 앞에 ‘괜찮아! 하시며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 하느님의 기쁨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교우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성탄의 축복을 전합니다.

2009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조 환 길 타대오 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함께 합니다.”

교 구 설립 100주년은 우리 교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큰 은총과 축복의 해입니다. 100주년이 참으로 은총과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교구민의 기도와 마음과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에 교구 사목국에서는 2010년부터 전 교구민의 기도와 마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기도, 영성,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신한 생각들, 프로그램들,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 포상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마 감 : 1.17(일)까지
 제출처 : 교구 사목국, E-mail : samok@dgca.or.kr
 문 의 : 250-3051, 팩스 : 250-3054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 입당송 [시편 2,1]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 입당송 [이사 9,5 참조]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 제1독서 [이사 52,7-10]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 ▲ 화답송
 ◎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 ▲ 제2독서 [히브 1,1-6]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미성당 귀금속
 보석감정 무료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아몬드
 커플링 행사 (가나강화를 받고오세요)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감정사 박제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도로	(구정북부) 미성당	앞산 순환도로
---------	------------	---------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 롯데점 -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최고의 전문교육기관(국가자격증)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취득
 ❖ 나이, 학력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오전반 | 오후반 | 야간반
 중일반 | 주말반 | 자격증반
 대구교육원 791-7677 이경희
 경산교육원 813-7343
 하양교육원 856-7243 (율리아)

2주에 5~7kg 감량
 혈액을 맑게, 독소와 숙변
 노폐물 제거, 체질개선.
 (이강옥교수의 종합 야채효소)
 한경애테레사 053)793-7997

예금과 대출은
 ●신속하고 간편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

장윤제 연합치과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752-9797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